

애플 '디스플레이 독립설' 솔솔... 위탁 생산 가능성에 무게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 피해 불가피
마이크로 LED 직접 양산여부 관심
선불리 양산에 나서기 어려운 분야

애플이 디스플레이도 자체 생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산업계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애플이 새로운 협력사를 찾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디스플레이 산업도 반도체 산업처럼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내년 말 출시할 애플 워치 울트라에 이어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제품으로 자체 생산한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연달아 보도했다.

2017년부터 시작한 'T159'라는 프로젝트가 결실을 이뤘다는 것. 이 프로젝트는 마이크로 LED를 양산하는 내용으로, 애플은 2014년 스타트업 럭스뷰를 인수한 후 꾸준히 연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 LED는 OLED를 이을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불린다. 자체 발광 소자를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OLED보다 훨씬 휘도가 높고 번인 현상도 없



애플워치4.

/애플

다.

애플이 디스플레이를 중시해왔던 만큼, 마이크로 LED 도입 가능성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애플은 스마트폰 초기 고밀도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레티나'라는 이름으로 마케팅 요소로 사용해왔다. 최근 필수가 된 가변 주사율 디스플레이 기술 LTPO도 애플의 특허 중 하나다.

애플이 디스플레이를 내재화한다면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 피해가 불가피하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매출 중 30% 이상을 애플에 의존하고 있고, LG디스플레이도 애플 비중을 높여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 주



삼성전자 마이크로 LED TV.

/삼성전자

가도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문제는 애플이 마이크로 LED를 직접 양산할 수 있을지 여부다. 마이크로 LED는 이미 일부 업체에서 양산되고 있지만, 비용이 높아 제대로 상용화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마이크로 LED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수많은 픽셀을 붙이는 '전사' 작업이 아직 고도화하지 않아 가격을 낮추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연구용 외에는 그렇다할 디스플레이 랩도 갖고있지 않은 애플이 선불리 양산에 나서기는 어려운 분야라는 얘기도.

때문에 업계에서는 애플이 자체적으로 양산하기보다는 지금과 같이 생산성

이 높은 업체에 위탁 생산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국 BOE가 새로운 공급 업체로 거론되고 있다. BOE는 애플에 OLED 디스플레이 공급을 논의한 바 있으며, 최근 마이크로 LED를 양산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를 제치고 최대 협력사로 거듭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BOE가 아직 기술적으로 크게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아직 OLED 부문에서도 기술력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더 어려운 기술인 마이크로 LED로 높은 품질을 요구하

는 애플을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부 해외 전문 매체들은 LG디스플레이가 마이크로 LED를 공급할 업체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애플이 다시 '공급망 흔들기'를 시작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새로운 협력사를 키워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으로, 애플은 일찌감치 시스템 반도체 부문에서도 TSMC와 삼성전자가 이에서 줄타기를 해온 바 있다. 부품에 불과했던 디스플레이가 차세대 모바일에서는 그만큼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에 따라 중국이 '디스플레이 굴기'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도체 육성이 좌절된 대신, 디스플레이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다는 것. 이미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이 중국에 2~3년 내로 따라잡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디스플레이가 최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서 다시 투자 여력을 확보하긴 했지만, 여전히 위기감은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이다.

/김재홍 기자 juk@metroseoul.co.kr

‘선택과 집중’ 롯데케미칼, 비핵심 사업 정리 택시시장의 진화... ‘프리미엄’으로 차별화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 사업 강화
파키스탄 자회사 1924억에 매각

롯데케미칼이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 사업 강화를 위해 비핵심 해외 사업을 매각한다.

파키스탄 소재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고순도테레프탈산) 생산 판매 자회사인 LCPL(Lotte Chemical Pakistan Limited) 매각을 위한 이사회를 실시해, 보유지분 75.01% 전량을 파키스탄 화학회사인 럭키코어 인더스트리(Lucky Core Industries)에 약 1924억원에 매각한다고 16일 밝혔다.

롯데케미칼은 금번 확보한 자금으로 기존 석유화학 제품인 PE, PP, PET 등의 고부가화를 추진하고 스페셜티 사업

확대 및 친환경 소재 사업군 진출 등에 사용 계획이다.

롯데케미칼은 사업 경쟁력을 위해 2020년 하반기부터 울산공장 PTA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설비 전환을 통해 PIA(Purified Isophthalic Acid, 고순도 이소프탈산)를 생산해 왔으며, 금번 파키스탄 PTA 자회사 매각으로 해당 제품을 생산하지 않게 되었다.

PIA는 PET, 도료, 불포화 수지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롯데케미칼의 PIA 연간 생산규모는 52만톤으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실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2030년 매출 50조원 계획 중, 고부가 스페셜티와 친환경 소재사업에서만 전체 매출의 60%에 해당하는

약 3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다.

황진구 기초소재사업 대표는 “이번 해외 자회사 매각은 비전 2030 전략 방향에 맞춘 사업포트폴리오 조정의 일환으로, 기존 사업의 안정적인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고부가 제품군 확대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했다.

금번에 매각되는 LCPL은 롯데케미칼이 지난 2009년 약 147억원에 인수한 회사로, 글로벌 경기 불안 등의 어려움에도 2021년 매출 4713억원, 영업이익 488억원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롯데케미칼의 고부가 스페셜티 확대라는 중장기 비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매각을 결정하게 되었다.

/허정운 기자 zelkova@

프리미엄 차량 라인업 확대

프리미엄 택시가 국내 택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최근 고급 택시 시장은 청결한 내부와 친절한 드라이버를 넘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프리미엄 리무진 컨버전 브랜드인 케 이씨모터스는 노블클라세 L4를 카카오택시 블랙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노블클라세 L4는 4인승 프레스티지 모델이다. VIP 의전에 특화된 실내 공간을 갖췄다.

노블클라세 L4는 운전석과 2열 VIP석을 구분해주는 커튼 파티션, 뉴스와 날씨, 증권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센터 파티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파수비오 VIP 시트 등을 적용했다. 고요한 모빌리티, 따뜻한 이동 서

비스를 제공하는 코엑터스는 독특하면서도 클래식한 외관과 함께 영국 런던의 명물 택시로 유명한 블랙캡 차량을 운영 중이다. 특히 슬라이드 레일이 기본 장착돼 장애인 및 비장애인, 교통약자 등 모두 구분 없이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다. 코엑터스는 블랙캡 외에도 청각장애인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로 관심을 끈 ‘고요한 M’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특수 목적형 이동 경험 AI 안내원’ 서비스를 개발해 공개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차별화된 특별한 이동 서비스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고급 택시 이용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앞으로 고급 택시 시장은 새로운 프리미엄 차량 라인업 확대로 고급 택시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아시아나항공, 개조화물기 여객기로 복원

국제선 수요 회복세에 리오프닝 대비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 기간 화물기로 개조한 항공기 7대를 모두 다시 여객기로 되돌렸다.

아시아나항공은 16일을 마지막으로 남은 개조 화물기인 A330 항공기에 이코노미 좌석 260석을 장착, 여객기로 원상 복원하는 개조 작업을 마쳤다. 최근 국제선 수요 회복세에 따라 기존에 화물기로 개조한 A350과 A330 항공기를 모두 여객기로 복구해 본격적인 리오프닝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 장기화로 줄어든 여객 수요 대비 늘어난 화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0년 9월 A350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해 평당 23톤의 화물 탑재가 가능한 화물기로 탈바꿈 시켰다.

이후 글로벌 항공 화물 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A350 4대, A330 3대 총 7대의 여객기를 화물 전용으로 활용해 개조한 대당 500회 이상 운항에 투입했다. 이를 통해 첫 화물기 개조 이후 전체 7만톤의 화물을 수송해 약 3700억원의 추가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다.



아시아나항공이 리오프닝에 대비해 개조화물기를 여객기로 다시 복원했다. /아시아나항공

특히 화물 운송 수요가 높은 미주 노선에 개조 화물기를 적극 투입해 추가 매출 약 3000억원을 기록했으며, ▲IT·전자기기 부품 ▲개인보호장비 등의 탑재 물량을 늘려 코로나 이전 대비 약 25%의 추가 매출을 올렸다. /허정운 기자

르노코리아, 협력사 대금 170억 조기 지급

예정일 보다 최대 7일 앞서

르노코리아는 설을 앞두고 중소부품 협력사에 물품 대금 170억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르노코리아는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중 중소기업 81곳을 대상으로 예정된 지급일보다 최대 7일 앞선 18일 대금을 지급한다.

르노코리아는 고급리와 경기 침체 영향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르노코리아가 명절 전 조기 지급한 물

품 대금 규모는 1650억원에 달한다.

르노코리아는 또 최근 협력사의 수출 지원 호소문 발표와 관련, 타개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영진 르노코리아 구매본부장은 “지난해 수출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협력업체가 최근 자동차 전용선박 확보난과 높아진 수출 물류비 등으로 올해 실적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도 정부, 유관기관과 함께 현실적인 타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